

나태함, 그 순간은 달콤하고 결과는 비참하다 안전점검 및 검사분야 전문가로서 산재예방달인 첫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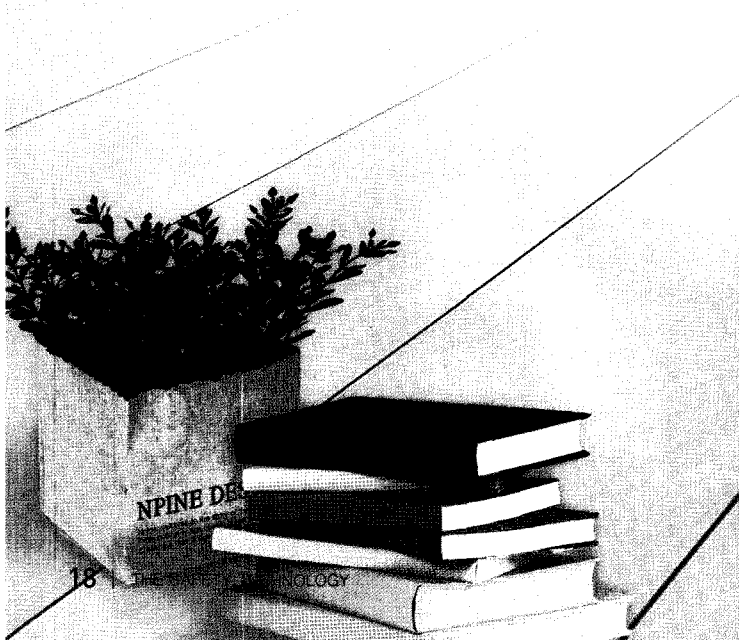


산재예방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라고 칭할 수 있는 '산재예방달인'.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기술본부 한만철 차장은 이 '산재예방달인'이라는 영예를 지난 7월 받은 바 있다. 공공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 담당자로서는 처음으로 산재예방 달인을 수상하면서 그 영예는 더욱 컸다.

그렇다면 그가 산재예방달인으로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어땠을까.

대한산업안전협회 검사팀 **한만철** 차장

취재 · 사진 | 임동희 기자(ldhfree@safety.or.kr)



뒤늦게 찾아온 공부의 신

2000년도에 협회 검사팀으로 입사한 한만철 차장은 “안전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신념아래 11년째 크레인, 프레스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 확보하기 위한 안전검사 및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 중이다.

그는 33세의 늦은 나이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구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를 야간과정으로 졸업하는 등 4년간 업무와 학업을 병행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에는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용외국어학과에 편입하여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나태함, 그 순간은 달콤하고 결과는 비참하다”라는 문구를 되새기며 퇴근 후에도 쉬지 않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그는 최근에 실시된 제93회 기술사 정기시험에 합격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최고봉인 기계안전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다.

“공부의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끝이 안보이니까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기술인으로서 많은 지식을 쌓고 싶습니다”

타워크레인 1,100여대 안전성 검사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는 1964년 창립된 민간 재해예방기관이다. 이곳에는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인증·안전검사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대행, 안전진단, 안전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노라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다. 이러한 전문가 집단에서 그는 현장업무에서 축적한 전문지식 및 경험과 학업에서 얻은 지식을 통해 산재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그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달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남들은 한 번도 올라가기 힘들다는 타워크레인을 지금까지 약 1,100여대 올라가면서 안전검사 및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해왔다. 크레인의 형태 및 제작사별로 모델별 사양을 체계화(64개 모델)하여 검사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한 자랑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타워크레인 합동점검,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등 주요 프로젝트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타워크레인 사고방지를 위한 연구도 입사 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오고 있다.

“모든 사고는 기본을 지키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볼트하나를 느슨하게 조인 결과가 커다란 타워크레인을 붕괴시켜 대형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지요. 모든 작업자가 맡은 바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기본을 지켜준다면 안전사고는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검사 업무 개선에도 기여

현재 안전기술본부 검사지원팀에서 근무하는 한만철 차장은 다양한 안전인증·안전검사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검사원들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을 대폭 감소시켰다. 검사자료 데이터 전송, 검사관련 각종 통계 기능, 합격증명서 자동발급 방식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 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검사용 타워 설치방법으로 건물신축 방안이 아닌 타워크레인 마스트 조립 방식을 제안하면서 기존 건축비의 1/10 가격으로 검사타워를 설치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앞으로는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모든 검사원들이 좀 더 전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12종의 안전검사 대상기계의 자료를 세부적으로 데이터화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위험기계기구를 검사하는 검사원들의 전문성은 곧 근로자의 안전으로 연결됩니다. 검사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검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 임무이며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예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현장에서 점점 시 발견되는 위험요소와 사고사례를 가지고 강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가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위험요소를 스스로 발견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안전점검 및 검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재예방 달인을 처음 수상하게 된 그는 앞으로도 산재예방 업무에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마쳤다. ☺

